

목포시, 근대패션 영상 시사회와 의상 기증식 가져

목포근대문화자원·패션매력 어우러진 미디어로 국제 홍보 박종철 대표 “시너지 효과 낼 것으로 기대” 기증 소감 밝혀

목포시는 27일 시청에서 우수한 근대문화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근대화홍보 패션영상 시사회와 의상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국내 최고 패션업계인 슬링스톤(대표 박종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목포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런웨이에서 근대화 패션쇼를 시행하고 영상을 촬영했다.

슬링스톤은 협약에 따라 패션이 어우러진 목포 근대역사문화자원 홍보영상을 목포시에 제공했다. 앞으로 목포시와 슬링스톤은 영상물을 적극 활용해 근대문화유산의 도시 목포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또한, 슬링스톤 박종철 디자이너는 1930년대 근대 빈티지 의상 패션쇼와 별개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지 않은 오리지널 근대 의상 작품 2벌을 목포시에 기증했다.

박종철 대표는 “근대역사문화가 집적되어 있는 목포와 근대 의상 작품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증 소감을 말했다.

목포시는 목포근대문화 홍보영상과 기증받은 의상 등을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에 전시해 목포시민과 관광객에게 목포만의 근대문화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박종철 시장은 “이번 패션쇼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도시 목포의 매력을 젊은 층에게 각



각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목포만의 매력을 도출해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군, 국가지점번호판 신규설치 및 일제조사 추진

영암군은 사고취약지역의 위급상황 대비 및 국가지점번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까지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신규설치 및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의 위치 안내 및 표시 방식을 통일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산악·해안의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국가안전망으로, 전국을 가로, 세로 10m 격자형으로 구획을 나누고 구획마다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구성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영암군에는 비거주지역인 등산로, 산책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494개소를 설치하여 야외활동을 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조난 응급상황 대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6월까지 시종면, 도포면 간척지 일원의 현장 답사를 거쳐 18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암읍 도시재생 사업일환,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매일시장 상생사가 조성 및 활성화

영암군은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매일시장 내 먹거리 특화상점가 조성사업의 양성교육생과 담당공무원 및 영암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장 등 15명이 사업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참석자들은 야시장과 청년몰 조성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광주 송정역시장, 예술과 전통시장이 퓨전된 대인에 술시장과 교통 및 주차시스템의 선진화가 돋보이는 말바우시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상인들의 활동과 활성화를 위한 과정 및 청년들의 가게 운영 노하우 등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교육생은 “이번 선진

지 견학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기존상인과 청년상인이 함께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공유했다. 요즘 트렌트인 레트로(복고)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면 전통과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다른 도시의 먹거리 상점 운영방안 답사를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견학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참석자들의 열정이 더 커진 것 같다. 이번 견학을 통해 비교·분석된 내용들을 사업 진행의 세부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군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나아가 우리지역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더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2023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성황리 폐막...관람객 3만5천명 다녀가

580여 점 한국춘란 전시...대통령상 오순철씨 ‘주금소심’ 영예



‘2023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지난 26일 전남 함평군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한국춘란의 미래, 함평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580여 점의 한국춘란이 전시됐으며, 총 3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각지에서 선정된 60인의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장관상

등 155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오순철 씨가 출품한 주금소심(등록명:태홍소)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또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엔 이한솔 씨가, 환경부장관상은 박기범 씨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올해 난 명품 대제전은 전국각지에서 최고 수준의 작품이 출품되어 전국 대표 난 축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장중만 함평난연합회 추진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다”며 “침체된 난 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신안부유식품력산업협회 발대식 개최...150여 명 참석

신안부유식품력산업협회는 지난 24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해상풍력 분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신안부유식품력산업협회는 회장[OW코리아(주)] 등 5개 발전사와 5개 일반기업 그리고 신안군으로 구성되었으며, 흑산권역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과 어업인 수용성 확보, 계통연계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부유식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서늘시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넓은 바다를 보유한 신안은 바람의 풍속과 풍향 등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해상풍력을 조성하기에 최적지”라면서, “고정식 해상풍력 8.2GW 이외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잠재량 10GW 추정하고 있어 세계 최대 발전단지인 신안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시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명주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